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필요성과 역할

기고 정세일(유폴러스연구소 연구위원)

인쇄문화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세계 인쇄문화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디지털 및 친환경인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인쇄 중심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넘어서 새로운 수익원의 창출이 시도되고 있다.

디지털인쇄의 확산 및 고도화에 따라 다양한 소재를 대상으로 맞춤형 인쇄가 증가하면서 ‘소품종 다량 인쇄’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인쇄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인쇄기자재 제조업체들은 글로벌 친환경인쇄 트렌드에 대응하여 친환경 인쇄용지와 인쇄용제, 그리고 친환경잉크와 정화장치 등의 개발 및 공급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등의 인쇄문화산업 관련 협회들은 자체적인 친환경인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이 같은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인쇄문화산업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산업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일본의 인쇄문화산업체들은 IT기술을 도입하고, 인쇄상품의 기획과 편집 및 디자인, 그리고 마케팅과 배송 및 재고 관리업무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등 문화정보지식 산업으로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광고와 전자책(e-book)시장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인쇄광고의 비중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PwC(Price waterhouse Coopers)는 2010년 미국의 온라인 광고매출은 242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인쇄매체 광고시장은 248억 달러였으며, 2014년까지 온라인광고 시장은 344억 달러수준으로 성장하여 인쇄광고시장의 매출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온라인 전자 미디어의 성장에 따른 인쇄물량의 축소 경향은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 스마트미디어의 보급 확산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성장이 인쇄문화산업에도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인쇄문화산업 진흥정책의 상대적 빈곤

세계 인쇄문화산업은 이와 같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국내 인쇄문화산업의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인쇄문화산업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세계 12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인쇄산업은 디지털, 친환경, 비즈니스 영역 확장으로 대표되는 세계 인쇄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부가가치의 고급 인쇄물과 특수 인쇄물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생산 및 가공 인프라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국내 인쇄문화산업의 품질 향상 관련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노후화 된 설비가 많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인쇄기 중 약 40% 정도가 노후장비로 파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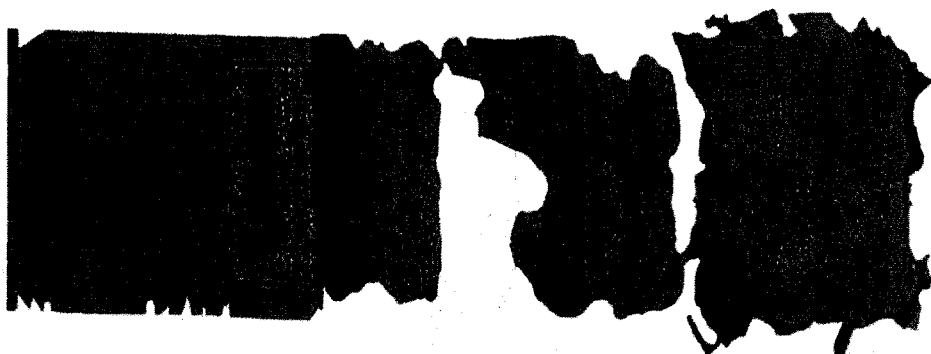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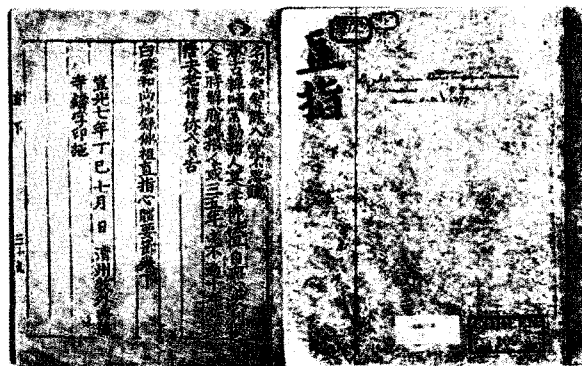
또한 국내 인쇄문화산업은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창출능력 또한 약화되어가고 있다. 국내 인쇄문화산업의 사업체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2008년 19.6%에서 2009년에는 0.3%로 낮아졌고,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도 2008년 12.9%에서 2009년 0.3%로 2005년 이후 가장 저조한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새롭게 유입되는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전체 종사자 수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인쇄문화산업 종사자 수는 2005년 77,979명에서 2009년 68,707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변화하는 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한 국내 인쇄문화산업의 자체적인 자생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국가의 산업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인쇄문화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적 지원은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빈약한 수준이다. 2011년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쇄문화산업 진흥 예산은 총 212억 원이 책정되었다. 하지만 이 예산 중 대부분의 사업이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우수도서 선정 지원, 국제도서전 개최 및 참가 지원 등의 사업에 책정되었으며, 순수하게 인쇄문화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6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타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인쇄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액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2010년 방송콘텐츠산업 중 제작지원만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60억 원이었으며, 같은 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6개의 국제영화제 지원만을 위해 배정된 예산도 35억 원이었다.

인쇄문화산업의 특성에 기초한 종합적인 진흥계획 마련이 절실한 상황

현행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2장에서는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쇄문화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의 제2장 제5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제정 후 4년여의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인쇄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은 출판문화산업진흥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되어 왔고, 따라서 단기적이며 사안별 긴급 처방을 위한 정책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늦춰져서는 안 될 것이다.

국내의 경우 인쇄문화산업은 국가적 자부심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금속활자 인쇄물인 <직지심체요절>의 탄생지이다. 따라서 인쇄문화의 종주국으로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은 전통적 인쇄산업의 재구조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고용창출과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인쇄문화 종주국의 위상을 상징하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직지심체요절>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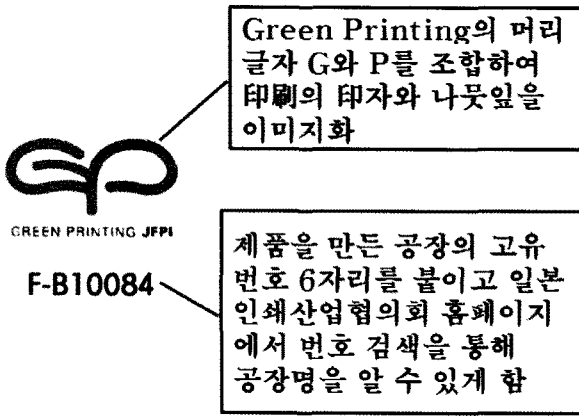
국내 인쇄문화산업은 다양한 문제점들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에는 이 같은 문제점들이 우선적인 중점 해결과제로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인쇄문화 종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기존의 산업구조를 친환경 지속성장 산업으로 재구조화 하여야 할 것이다.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쇄문화산업의 근본적인 재구조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과 산업 관련 정보의 생산 및 유통이 활성화 되어야한다. 인력과 정보는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 자원이자 중요한 결정요인이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충분한 대응력을 갖춘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 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이다. 인쇄문화산업 전공 인력을 배출하는 정규 교육기관은 대학원 3개교, 4년제 대학 2개교, 전문대학 1개교, 고등학교 2개교에 불과하며, 교육 내용 역시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인쇄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인쇄문화산업 재교육 기관 역시 매우 부족하여 종사자들의 고숙련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인쇄문화산업 선진국들의 경우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전공 인력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기존 종사자들의 직능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도 고도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인쇄문화산업협회인 PIA(Printing Industries of America)의 경우 디지털·친환경 인쇄시스템은 물론 산업안전과 종사자 건강 등에 관한 다양한 직능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프로그램과 인쇄관련 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PIA의 직능향상 교육을 위한 설비는 디지털인쇄와 친환경인쇄에 대한 교육까지도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미국 인쇄문화산업협회인 PIA의 직능향상 재교육 모습과 교육설비





일본 GP마크의 의미

종류	윈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GP마크형태			
제조공정	일부 인쇄 공정 GP	모든 인쇄 공정 GP	모든 인쇄 공정 GP
인쇄자재	수준 2이상의 인쇄자재	수준 2이상의 인쇄자재	수준 1이상의 인쇄자재

그리고 국내의 경우, 인쇄문화산업 관련 정보의 창출역량이 미흡하여 소량의 정보만이 정기적으로 창출 및 유통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인쇄문화산업 관련 협회가 자체적으로 또는 정부 출연 기관 등의 기금 지원 등을 통해 풍부한 통계조사가 정보의 창출이 정기적이고 활발하기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에는 친환경인쇄를 활성화하는 지원 방안이 담겨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친환경인쇄와 관련된 제도적 구조화가 진행되었고, 인쇄문화업체들 또한 이에 대응한 자체적 개선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일본인쇄문화산업연합회 PIAJ(Printing Industries Association of Japan)는 <GP(Green Printing)인증제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실시하고 있고, 미국 PIA는 <The Green Guide for Graphic Communications>를 만들어 회원사들에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PIAJ는 친환경인쇄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인쇄서비스 그린 기준'을 제정하고 이 기준을 달성한 인쇄공장 및 기업이 기준에 적합한 인쇄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해 그린프린팅을 인정하는 GP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일정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받은 인쇄 제품에는 GP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1년 3월 기준 오프셋 인쇄 부문 205개 공장, 실크 인쇄 부문 14공장, 그라비아 인쇄 부문 33공장, 스크린 인쇄 부문 4공장이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셋째,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인쇄물수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 대한인쇄문화협회에는 인쇄물수출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따라서 인쇄물수출 지원 정책은 인쇄물수출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인쇄설비의 현대화 및 디지털화가 지원되어야 한다. 세계 인쇄문화산업이 디지털 친환경인쇄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

황이지만, 국내의 경우 노후 인쇄설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인쇄문화산업이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후한 인쇄설비의 현대화 및 디지털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노후 인쇄설비의 현대화와 디지털화를 위해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용자지원제도 구축이 있다. 용자제도를 통한 지원 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주무부처와 금융기관의 협조를 통해 노후 인쇄시설의 현대화 및 디지털화 추진 업체에 대한 자금리의 장기 용자제도를 구축한다면 실제로 설비 측면에서의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직지심체요절>을 산업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직지심체요절>을 활용하면 인쇄문화 종주국으로서의 글로벌 이미지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직지심체요절>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상품을 개발하면 인쇄종주국으로서의 국민 자긍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상품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진흥계획의 수립과 실행은 문화산업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건인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실행은 인쇄문화산업뿐만 아니라 국내 문화산업 전체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건인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미디어 융합적인 디지털 환경에서는 문화산업의 공존과 상생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서만 전체 문화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국민의 복리를 뒷받침 할 수 있다. 2010년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 수립으로 전자출판산업의 육성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쇄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지원도 동시에 균형 있게 추진 될 때 인쇄문화산업이 국내 문화산업의 생산성 증대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